“불교유산, ‘가치’ 중심으로 보존해야”

이수정 전문위원, 9월 30일 열린 조계종硏·佛문화유산硏 세미나서
“예불·수행 등 이어지는 사찰은 ‘살아있는 종교유산’으로 봐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문화유산은 특정 시점의 원형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미적·학술적·정신적 가치와 이를 구현하는 유형·무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찰은 예불·수행·의례·교육과 공동체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인 만큼 종교적 기능과 원형 유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산이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수정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연구소·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개최한 ‘근대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가치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전문위원은 2024년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면서 유산 보존정책도 물질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가치 중심의 접근은 현재까지 종교적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유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위원은 불교유산의 보존을 ‘물질과 정신’, ‘보존과 사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산의 가치가 원상의 유형·무형적 속성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 중심의 불교유산 보존관리는 ‘가치의 확인-원상의 속성 파악-가치변화의 예측-대안 비교·의사결정’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해당 유산에서 어떤 가치가 핵심인지 확인하고 그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속성과 속성 간 관계를 파악한 뒤, 계획된 변화가 가치에 미칠 영향을 살펴 여러 대안 가운데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연구소·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근대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세미나.

이어 “수행, 예배, 의례, 교육과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이라며 “종교적 사용과 기능, 불교공동체의 전통적 관리방식, 장소에 부여된 정신적 의미는 불교유산의 중요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상 속성”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불교유산의 가치평가와 원상 속성 확인을 보존관리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선행절차로 제도화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도구 마련 △불교공동체가 가치 확인 및 의사결정 참여 △전문인력과 조직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전문위원은 “가치와 원상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불교유산의 물질적 실체뿐 아니라 종교적 기능, 정신적 의미와 공동체의 전승을 함께 보존하기 위한 사고의 틀”이라며 “기존의 원형유지 중심 보존을 살아있는 불교유산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통합적 보존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6 붓다의 마음, 중생의 표현 展’

한국불교미술협회, 10월 5~11일
한벽원미술관서 제34회 협회전


이미희, 초발심(71×86㎝, 비단채색, 2026).

붓끝에 금가루를 묻혀 관음보살의 모습을 재현하는 작업은 그림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수행에 가깝다. 가느다란 선 하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경 작가의 ‘수월관음도’는 그렇게 그려졌다. 금빛으로 새긴 마음속 깊은 고요와 간절한 발원이 화면을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도 고요히 머문다.

이미희 작가의 ‘초발심’ 역시 마찬가지다.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과 이를 품어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통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시작과 성장의 여정을 화폭 위에 펼쳐놓는다.

오늘날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한벽원미술관에서 기획전시 ‘2026 붓다의 마음, 중생의 표현 展’을 연다.

올해로 34회째인 이번 전시에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단청, 민화, 문인화, 서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불교와 불교문화예술이 나가야 할 지향점을 찾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본래 형상이 없는 붓다의 마음을 수행과 신앙, 사유와 미적 감각이 결합된 시각언어로 보여준다. 관람객에게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각자 자신만의 ‘마음의 풍경’을 마주하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동국대, 한국전통문화대, 동국대 WISE캠퍼스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소통하며 한국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개막식은 10월 7일 오후 5시.

배희정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의 머리에 불이 붙었다

⑱ 여구두연(如求頭燃)

선종의 대표적인 핵심 전적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당나라의 대시인 백낙천(772~846)이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살던 조과 도림 선사(741~824)를 찾아간 일화가 나온다.

항주 자사로 부임한 백낙천이 불법의 대의를 묻자, 선사는 〈법구경〉의 ‘칠불통게(七佛通偈)’를 인용해 “나쁜 짓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고 답했다. 백낙천이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라며 웃자, 선사는 “세 살 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일갈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일이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오늘 하루 구체적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다.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如 求 頭 燃

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눈앞의 과제들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수험생에게는 당장의 입시가, 취업 준비생에게는 채용 공고가, 자영업자에게는 이달 임대료가 눈앞에 닥친 ‘초미지급(焦眉之急)’이다. 선종 경전 〈오등회원〉에서 ‘눈썹에 불이 붙은 듯한 다급함’이라 표현했듯, 사람들은 생존의 불안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음속에서 타들어 가는 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일도 절박하다. 이를 가리키는 말이 ‘여구두연(如救頭燃)’이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잠시도 지체할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아야 함을 뜻한다. 〈대지도론〉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주희 역시 학문과 성찰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자주 인용했다고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전한다.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파(1052~1135)는 이러한 절박함을 온몸으로 살아냈다. 그는 무상함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 나는 산속 동굴로 달아났도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고 수행하노라.”

또한 악업의 무게를 절감하며 “지옥의 고통이 내 눈앞에 선하여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노라.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굴을 나가지 않으리라”며 사즉생의 각오를 다졌다. 나아가 “사람들은 내일이 올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일과 다음 생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안일한 삶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도 탐욕과 집착에 매달린다면, 이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을까. 젊은 세대가 자신을 채우기보다 남에게 보이는 삶에 치우치는 것, 이 또한 서둘러 꺼야 할 불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작 자신을 망가뜨리는 불길 앞에서는 무감각해진 채 살아간다. 그 사실이 섬뜩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후령통 종교·예술적 가치 조명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10월 1일~내년 3월 31일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후령통.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부처님 속 우주 후령통’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6년 국가유산청 전통산사국가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후령통의 해체와 납입 과정은 물론, 개별 유물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및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후령통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유산 4건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0건 등 성보 56건 174점에 달하는 복장물이 한자리에 공개된다.

전시는 〈조상경〉에 기반한 복장의례 절차와 후령통 납입 물목의 의미를 중심으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부처님 품속에 생명력을 넣다’에서는 불상과 불화 조성, 복장의 종교적 배경을 다루며 불복장의 개념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을 안내한다.

2부 ‘후령통을 장엄하다’에서는 후령통의 해체 및 납입 구조를 시각적으로 연출해 후령통 내부 구성요소를 선보인다. 특히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미륵보살좌상’ 등의 후령통을 통해 불상과 불화 간 후령통 양식의 차이를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다.

3부 ‘佛, 오롯이 만나다’에서는 후령통이 불상과 불화 내부에 납입돼 완벽한 신앙의 대상으로 완성된 모습을 조명한다.

박물관장 해운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성보에 담긴 대중의 정성과 바람, 후령통 안에 고이 깃든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희정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2027년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예약접수중
돌로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6월 말은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계절입니다.
출발일 :
1차 6월23일~7월01일
2차 7월05일~7월13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
2차 27년1월21일 출발~26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5월24일 출발~6월02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